

지역 매 아리

김제 부랑면 모내기철 현장행정

김제시 부랑면(면장 임영하)은 최근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을 찾아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들어 바쁜 농가를 찾아 농기계 작업시 안전사고 유의, 재해보험가입,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약 사용요령 등 추진 중인 사업 홍보에 나섰다.

또한 현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농업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신성마을 이승환 이장은 "올해 봄철 잦은 비로 인하여 보리 생육이 불량하고 도복된 경우가 많이 있고, 동계 조사료 재배농가의 경우 수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 좋았다. 주민과 행정의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영하 부랑면장은 "이장님들을 통하여 각 중 사업들을 홍보하다보면 개별 농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사업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개별 농가를 만나 홍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중기제품 구매 전시·상담회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나섰다.

완주군은 2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청사 문화강화실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생산업체 12개사가 참여해 완주군 구매·계약 및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업체 소개 및 우수 제품들을 전시·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체와 실무자들은 1대1 심층 구매 상담을 진행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수한 제품 및 다양한 인증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평소 몰랐던 공공기관의 구매흐름 등을 알게 됐다.

또한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실무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업체 우수 제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고재욱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인식제고 및 지역 업체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지역 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양파 가격폭락 막는다

공급과잉 비상... 산지폐기로 수급안정 대책 나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완주군이 산지폐기에 나섰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양파재배 현황은 지난해 230ha에서 올해 250ha로 8.7%가 늘었으며 전국적인 상황도 심각하다.

완주군은 내달 6일까지 산지폐기를 실시할 예정으로 물량은 1150톤(18.3ha)이며 지원기준은 보전기준의 80%(331원/kg, 6953원/3㎡)다.

또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파 파 효능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단체급

(상품) 1kg 가격은 1550원으로 4월(1713원)보다 163원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위원회의를 통해 과잉공급물량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산지폐기를 결정했다.

완주군은 내달 6일까지 산지폐기를 실시할 예정으로 물량은 1150톤(18.3ha)이며 지원기준은 보전기준의 80%(331원/kg, 6953원/3㎡)다.

또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파 파 효능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단체급

식소, 직거래장터를 이용한 소비, 판매확대에 대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등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국내 물량을 조절해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도매가격 5개년 평균 가격의 80%를 보장해 주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자율적 수급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출하를 앞두고 잦은 강우로 노균병, 흑색썩음병 등이 확산돼 상품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약제로 병해충 방제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

전북지방검찰청과 오늘부터 2주간 실시

완주군이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을 벌인다.

완주군은 28일부터 6월8일까지 2주간 전북지방검찰청 및 각 보건소 담당자와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불법재배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한 것으로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하고,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해서도 안 된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남용계층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며 "집 주변 및 텃밭 등 야생 양귀비나 대마 밀 경작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전주지방검찰청(259-4454), 보건소 의약관리(290-3042)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비만운동교실 활발

맞춤형 관리로 참가자들 체지방률 감소 등 효과 보여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김제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비

만관리 프로그램 운영(트램펄린-점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트램펄린-점핑교실은 연중모집 체지방률 25%이

상 주2회 15명 정도 인원으로 3~11월 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개인별 체성분 검사와 혈액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해 이에 대한 비교분석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비만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중등도 이상의 신체운동과 함께 식습관에 관하여 영양지도와 운동지도도 도와주며, 특히 지난해 운영 결과 참가자 중 체중 및 체지방률 감소, 골격근량 증가로 인해 운영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펄린은 트램펄린 위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신나게 하는 피트니스 종목으로 정신에 많은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이다. 아이들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운동효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 등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어렸을 때 신체활동을 많이 하여 에너지를 방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트램펄린 운동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이서 혁신도시 6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

완주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준수 캠페인

완주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25일 완주군은 이서 혁신도시 6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해 5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운전자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홍보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무겁다. 주차 방해 행위로는 ▲전용 주차 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면주차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매년 7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개선돼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안전교육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25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표자 및 제공인력 80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이용자 안전관리 일환으로 김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마련했다.

이배근 강사(김제소방서 소방관)는 화재예방, 소방 안전관리 및 비상탈출요령, 안전장구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 실습 과정을 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스

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김제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개 기관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개 기관으로 총 19개의 제공기관이 올해 1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500여명의 시민들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